

“더 코믹해져 돌아왔습니다”

SBS 드라마 '열혈사제' 김남길

5년만에 시즌2... 경쾌해지려 노력
신학교 교사, 마약 카르텔 처단기
이하니·김성균과 다시 뭉쳐 열연
“권선징악 통쾌...배우들 케미 폭발”

낮에는 사제로, 밤에는 범죄를 소탕하는 '천사파'의 두목으로 활약하는 히어로 김해일(김남길 분)이 5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8일 밤 10시 첫 방영된 SBS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2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김남길은 최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즌1보다 더 경쾌한 느낌을 담아내자는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길이 연기하는 김해일은 다혈질 성격에 불타는 정의감으로 푹푹 뭉친 캐릭터다.

특수요원이었던 과거를 등지고 성직자의 길을 걷기로 했지만, 육하는 성격 때문에 불의를 목격하면 참지 못하고 응징하기 위해 육성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이번 시즌에서 김해일은 마약 사건을 쫓아 부산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국내 최고 마약 카르텔을 처단하기 위해 온몸을 날린다.

김남길은 "5년 전과 달라진 시청자의 취향을 반영하려고 했다"며 "꼭 메시지를 담아야만 좋은 드라마인



왼쪽부터 김성균, 김남길, 이하니.

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2019년 종영한 '열혈사제' 시즌1은 사회 풍자, 코미디, 액션을 적절하게 버무리며 큰 인기를 끌었고, 자체 최고 시청률 22.0%로 종영했다.

김남길은 이번 시즌에서도 과감하게 망가지는 코믹 연기와 시원시원한 액션을 기대해달라고 귀띔했다.

"시즌1이 감정을 담아낸 격한 액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액션에 유쾌함을 녹였어요. 악인을 응징하는 과정에 유쾌하고 통쾌한 감정을 실으려고 노력했죠."

김남길을 비롯해 이하니와 김성균이 그대로 출연하고, 가수 겸 배우 비비(본명 김형서)는 부산 열혈 마약 팀 형사 구자영으로 새롭게 합류한다.

김해일의 든든한 조력자인 부산 남부지청 검사 박경선으로 출연하는 이하니는 "이미 한 번 호흡을 맞춰 현장에서 케미(호흡)가 폭발했다"며 "감독님이 제발 대본대로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촬영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애드립을 주고받았다"고 떠올렸다.

시즌1에 이어 연출을 맡은 박보람 감독은 "특히 코미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릭터들의 웃긴 매력에 그대로 가져왔고, 거기에 더해 인물들이 짝지어졌을 때 나오는 웃긴 장면을 자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며 "시즌1 때 배우들의 합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장점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 3개국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EBS1 3부작 ACC 등 3개 기관 기획·제작



방글라데시 다류 장면. (ACC 제공)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3개국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다큐는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라는 주제로 오는 11일, 12일, 18일(밤 10시 45분) EBS 1TV에서 방영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와 함께 공동기획·제작했다.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라는 주제로 방영되는 이번 다큐는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총 3부작.

이번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는 ACC, EBS, ICHCAP 세 기관이 협력한 네 번째 결과물이다.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3개국 무형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가치를 알리기 위해 협력해왔다.

먼저 11일 첫 방송되는 1부 '담배막에 그린 전설-네팔 미탈라 회화'는 벽화 문화 '미탈라 회화'를 조명한다. 전설로만 남은 '미탈라 왕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네팔 남부 자나푸르 지역에서 네팔 힌두교의 큰 축제인 '티하르 축제'를 앞두고 사람들이 협력해 미탈라 회화를 그리고, 전통축제 티하르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미탈라 회화를 통해 힌두교 신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모든 생명들과 축복의 시간을 갖는 전통을 만난다.

12일 방송되는 2부 '오늘도 무대 위에서-스리랑카 줄인형극 루카다 나트야'는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루카다 나트야' 공연을 보여준다. '루카다 나트야'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통 농업 방식을 소개하는 작품도 있다. 오는 18일 방송되는 3부 '기후위기를 이겨낸 물 위의 농장-방글라데시 수상농장'은 방글라데시의 전통 농업 방식인 '수상농업'을 소개한다. 수상농업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는 ACC, ICHCAP, EBS가 참여해 각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완성됐다"며 "아시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기획된 만큼 방영 외에도 ACC의 전시, 교육 등에도 다채롭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CC, EBS, ICHCAP는 지난 2017년 첫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를, 2019년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2022년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2'를 제작했다.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3부작은 EBS 누리집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현정, 스타 아이돌 제작자 변신

지니TV '나미브' 다음달 첫 방송... 연습생 스타 탄생 프로젝트

배우 고현정(사진)이 아이들을 키우는 스타 제작자로 변신한 지니TV 새 드라마 '나미브'가 다음달 첫 방송된다.

지니TV는 '나미브'를 다음달 23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나미브'는 회사에서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과 회사에서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의 스타 탄생 프로젝트를 그린다.

고현정은 자신만의 철학과 감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강

수현을 연기한다. 판도라엔터테인먼트의 공동 대표로 일하다 모종의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강수현의 회사에 소속돼있던 장기 연습생 유진우 역에는 려운이, 강수현의 남편 심준석 역에는 윤상현이, 강수현과 심준석의 청각장애인 외동아들 심진우 역에는 이진우가 나선다.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 '유괴의 날' 등을 만든 한상재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